

대리석 돼지 축사 ‘행복한 축산’



대리석 축사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동물복지, 생산성 향상, 악취문제를 해결한 스마트팜 축산농장인 에스비팜의 서순길 대표가 아기돼지를 살피고 있다.

/나주=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황금돼지해 나주 스마트팜 축산농장 가보니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대리석 축사에서 사는 돼지 보셨나요? ‘눈으로 보이는 냄새까지 잡겠다’는 오기로 축사 벽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는데 전화위복이 됐어요. 대리석이라 당연히 깔끔하고, 벽체가 두꺼워져 단열이 잘 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졌죠. 당연히 돼지 건강이 좋아져 생산성은 높아지고 민원도 해결됐어요.” <관련기사 2면>
진눈깨비가 내리던 지난 4일 오후,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돼지 축산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에스비팜’. 이 곳은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아 30kg이 될 때까지 키우는 번식농장이다. 어미돼지 1300마리가 아기돼지 6000여마리를 낳아 기르고 있다.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번식농장 ‘농업회사법인 (주)에스비팜’ 7300여마리 키워 모든 시설 첨단 ICT 시스템 … 생산성 높고 업무량 줄어

7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지만, 여느 축사와는 달리 양돈농장 특유의 고약한 냄새는 없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축사 때문에, 아기돼지 모양의 귀여운 돌 조각상이 없었다면 양돈농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였다.
농장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됐다. 외부인은 전용 출입구에서 슬리퍼를 갈아신고 신발 소독을 한 뒤 샤워를 해야만 출입이 허락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치명적인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농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영역 차장은 “전염병이 돌아 살처분을 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멸종하게 살아있는 돼지들을 허망하게 보내야 하는 게 더 큰 상처”라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농장은 모돈사,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등 돼지 생애주기별로 구분돼 있다. 또 스마트 농장이라는 이름대로 미생물실, 액비 저장탱크, 순환조 등 모든 시설이 첨단

ICT로 이뤄졌다.
축사 한 가운데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팬은 알아서 작동한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줘야 한다. 내부 센서를 활용해 돼지에게 가장 쾌적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냉·난방기와 환기팬을 작동시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사료 공급장치도 ICT를 접목했다. 젓먹이 돼지는 먹는 양에 따라 젓량도 비례하는데 이를 각각의 어미돼지에 맞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어미돼지별 맞춤형 서비스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낭비가 없어졌고, 그만큼 생산성은 높아졌다. ICT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은 30% 늘었고, 업무량은 줄었다. 7000여 마리를 키우지만, 직원은 11명뿐이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돼지를 빼고는 돈사 전체를 컴퓨터와 연결된 버튼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골칫덩이 분뇨는 미생물순환식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돼지 분뇨를 축사 아래 물과 미생물이 순환하는 정화장치로 곧장 떨어지도록 설계한 덕분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아쉬움도 토로했다. 서순길 에스비팜 대표는 “시설과 환경은 현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돼지농장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편견이 남아있다”며 “(편견 때문에)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키는 양돈 농가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시설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이를 맞추면 허가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서 대표는 “직원이 행복하고, 주민·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돈농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

문대통령 임명 … 청와대 2기 공식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62) 주(駐)중국대사를 임명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관련기사 3면>

초대 비서실장 역할을 마무리하고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0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 수장과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면서 2기 청와대가 본격적인 맛을 올리게 됐다.

특히, 노 실장과 강 수석 등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전전 배치된 것은 집권 중반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여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인선 결과가 발표된 후,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참 두렵기도 하다”며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배우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잘 전하고, 국회의 민의를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년여간 (국회)밖에 있으면서, 정책이 낯설므로 다니며 국민과 충돌

하고, 국민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을 봤다”며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 실장은 춘추관에서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올해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고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급 인사에 이어 9일에는 비서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급 인사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권역기 춘추관장을 비롯해 출마 예상자로 꼽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등이다. 아울러 공식으로 남아있는 의전비서관, 국정홍보홍보비서관 인사도 이날 또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해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용균법 등 법률공포안 8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사후에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고 김용균씨)의 회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김정은 방중 … 시진핑과 정상회담

8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 회동을 갖는 등 집권후 4번째 방중일정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면>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장 중앙위 제1부부장 등 핵심 참모진과 함께 이날 오전 특별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영빈관인 조어대(釣魚台)로 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4시 30분경(현지시간)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양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북중 경제협력에 비롯한 관계 개선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전날인 7일 저녁 단둥을 통과한 뒤 선양역에 도착해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측의 환영을 받았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베이징역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김 위원장 일행의 차량은 수십 대의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오전 11시 16분경 중국이 초대할 귀빈이 묵는 조어대(釣魚台)로 들어갔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방중을 시작으로 외교행보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남북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국이 본격 가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동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작동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